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Received: October 29, 2021
Revised: November 17,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박지영¹, 진경선²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¹,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²

교신저자: 진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pathic Tendencies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Lying to Parents

E-MAIL:
kjin@sungshin.ac.kr

Ji-young Park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 Copyright 20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부모의 관심과 관여는 대체로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성인기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과도한 관여를 지속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청년 자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이들의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에 437명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정도, 그리고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를 향한 거짓말 정도 또한 정신병질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진입기 자녀들은 부모의 헬리콥터 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더 거짓말을 자주 하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높은 정신병질 성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인진입기, 헬리콥터 부모역할, 거짓말, 정신병질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ber, 1996; Silk et al., 2003). 이러한 통제적인 양육의 부정적 효과는 서구 문화뿐 아니라 상호의존성이 높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Wang, et al., 2007).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과보호적이고 과잉통제적인 양육방식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진입기 또는 성인 초기까지 유지되는 경우를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이라 일컬으며 이에 주목하고 있다(e.g., 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Kwon et al., 2016; LeMoyné & Buchanan, 2011; Odenweller et al., 2014; Padilla-Walker et al., 2012;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마치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상공을 맴돌며(hovering)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착륙할 준비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빗댄 용어로, 부모가 이미 성인기에 진입한 자녀의 사회적, 학업적 그리고 직업적 문제 등 삶의 전반에 높은 수준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LeMoyné & Buchanan, 2011; McGinley, 2018; Schiffrin et al., 2014). 여러 문화권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 청년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김가연, 박주희, 2019; 안혜연, 설경옥, 2020; 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Kwon et al., 2016; LeMoyné & Buchanan, 2011; Luyckx et al., 2007; Odenweller et al. 2014; Padilla-Walker et al., 2012;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Urry et al., 2011).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Schiffrin et al., 2014), 불안 수준이 높았다(Stevens et al., 2015). 이와 일관적으로 대학생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 정도는 그들이 우울 및 불안으로 인해 받은 약물 처방 및 별도로 처방받지 않은 진통제 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LeMoyné & Buchanan, 2011).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역시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과 대학생의 우울 수준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김가연, 박주희, 2019). 연구자들은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에 대하여, 독립성의 획득을 도모하는 성인진입기 발달의 특성상(Arnett, 1998; Nelson & Barry, 2005), 부모의 과보호와 과도한 관여가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Reed et al., 2016; Schiffrin et al., 2019).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중 한 영역은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사회도덕성이다. 최근의 선행 연구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 청년의 사회적 적응 및 도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경미, 조성현, 박찬솔, 2021; Kouros et al., 2017; McGinley, 2018; Padilla-Walker, 2014; Segrin et al., 2012, 2013; Spokas & Heimberg, 2009). 예를 들어,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보고할수록 대학생들은 높은 사회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uros et al., 2017; Spokas & Heimberg, 2009). 또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들은 낮은 자기

조절, 그리고 낮은 또래 관계 역량(peer social competence)을 보였다(Moilanen & Manuel, 2019). 나아가,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자녀의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 그리고 낮은 친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Ginley, 2018; Nelson et al., 2019; Schiffrin et al., 2021).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자녀의 성공에 지나친 초점을 두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점조망(perspective-taking) 혹은 공감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의 친사회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cGinley, 2018; Schiffrin et al., 2021).

관련하여,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 자녀의 성격 특질의 발달과도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선행 연구들은 자기애성(narcissism) 특질에 주목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특권 의식(entitlement) 혹은 자기애적 성향이 높음을 발견하였다(Segrin et al., 2012, 2013).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주로 보이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높은 반응성(responsiveness)을 보이고, 자녀의 위험 혹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도움 혹은 개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예외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나아가, 본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정신병질은 자기애성 그리고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성격의 '어두운' 3요소로 여겨지는데, 이는 이 세 가지 성격 특질이

모두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냉담함, 공감의 부재,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부정적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Paulhus & Williams, 2002). 이 중, 정신병질은 Cleckley(1976)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반사회적인 특성을 보인다(Hare et al., 1991; Patrick et al., 1994; Paulhus & Williams, 2002). 특히,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개인들은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타인에게 공감하기보다는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특징을 보인다(이수정, 허재홍, 2004; Book et al., 2006).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자녀의 특권 의식 및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Segrin et al., 2012, 2013)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모의 과도한 관여가 성격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인 정신병질의 발달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정신병질 발달에 유전적 소인이 중간에서 강한 정도의 효과 크기로 기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for a review see Blair et al., 2006), 특히 정신병질의 핵심 증상인 공감의 결여와 같은 정서적 역기능에 있어 유전적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Viding et al., 2005).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유전적 소인과 함께 환경적 소인 역시 정신병질 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Viding & McCrory, 2018; Waller et al., 2013). 부모의 성격적 특징 혹은 양육 방식과 자녀의 정신병질 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이기적인 성향(selfishness; Gao et al., 2021), 부모가 자녀의 의견에 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적대적인(hostile) 양육(Kahn et al., 2016)이 청소년 자녀의 정신병

질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모의 낮은 우호성(agreeableness), 또는 부모의 높은 신경증(neuroticism)이 권위주의적인 양육(authoritarian)의 경로를 통해 아동의 과대/속임(grandiose/ deceitful)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Krupić et al., 2020). 특히, 한 최근 연구는 양육의 부정적인 프로파일이 자녀의 정신병질 관련 기질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 부정적인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속성들(비일관적 훈육, 체벌, 과보호 등) 중 하나로 과보호적 양육이 포함되었으며, 과보호적 양육 자체와 자녀의 정신병질적 성향과의 관련성 역시 확인되었다(Deng et al., 2020).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헬리콥터 부모 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성을 파악한 연구는 부재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신병질과 관련된 양육 변인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들을 검토해볼 때, 자녀의 실패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성공에 몰두하여 자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이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과 성인진입기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에 관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관련성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과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lying to parents)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부모가 과도하게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경우, 부모-자녀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Smetana & Asquith, 1994), 이와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 행동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실제,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같은 연령대의 타인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그 거짓말이 얼마나 허용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성인진입기 청년들은 주인공이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로 하는 거짓말("Felt she had the right to make her own decisions((거짓말을 한 이유가)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을 다른 종류의 거짓말(예,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한 거짓말)보다 더 허용적으로 평가하였다(Jensen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를 속이는 행위를 더 허용적으로 여길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관련하여, 한 최근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진실성(authenticity) 있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Turner et al., 202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을 높게 지각한 성인진입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에 따른 자녀의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성인진입기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빈번한 거짓말 혹은 속임 행동은 무정서(callous unemotional)적이고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정신병질 성향의 두드러진 특징이다(Levenson et al., 199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인진입기 청년들이 과거 부모의 양육을 돌이켜보았을 때,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을수록 현재 부모에게 더 거짓말을 자주 하며, 이러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높은 정신병질 성향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 특히, 두 연구 모두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lying to parents)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장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정도와 정신병질을 포함한 성인 자녀의 현재 정신 건강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자녀의 정신 건강 저하와의 관계는 단순한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가 매개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과보호적인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빈번한 거짓말과 속임을 행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에 대한 속임의 경험이 대인관계 전반에서 타인을 조작하고 기만하는 정신병질적 성향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자녀들의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을 매개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하

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일방향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2013)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속임 행동이나 거짓말을 하는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를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에 동의한 사람은 총 499명이었으나, 연구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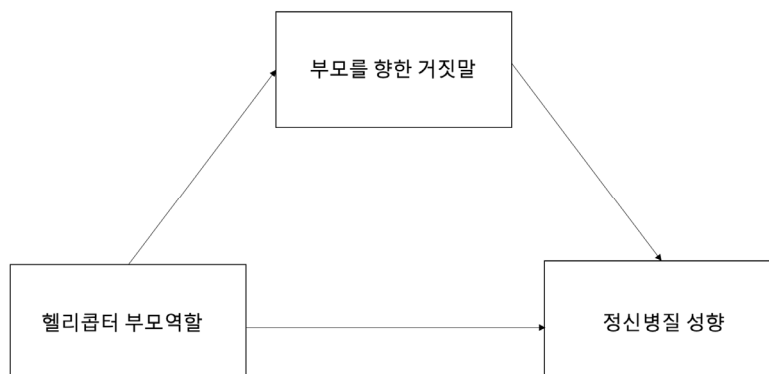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모형

거나 연구 참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62명을 제외하여 437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여학생은 255명(58.4%), 남학생은 182명(41.6%)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2세였으며($SD = 2.24$), 대학교 1학년 학생이 15.3%, 2학년 학생이 34.8%, 3학년 학생이 25.9%, 4학년 학생이 24.0%로 학년별 분포가 비교적 유사하였다.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63.4%였으며,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36.6%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SSWUIRB-2021-045).

측정도구

레벤슨 자기보고 정신병질 척도(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

레벤슨 자기보고 정신병질 척도는 정신병질의 행동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evenson 외 연구진(1995)이 개발한 26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공정식(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차적 정신병질 요인과 이차적 정신병질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차적 정신병질 요인(16개 항목, 예: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기를 좋아한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교묘하게 행동하는 경향과 무관심하며 조작적인 태도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차적 정신병질 요인(10개 항목, 예: “대부분의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은 충동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생활방식 등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26개 문항 중

에서 7개의 문항은 역문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1점: 정말 아니다, 4점: 정말 그렇다)로 평정한다. 각 문항의 응답을 모두 합산하여 개인의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질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원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 일차적 정신병질 문항은 .83, 이차적 정신병질 문항은 .69였다(Brinkley et al., 2001). 한국어 버전의 경우, Cronbach's α 값을 떨어뜨리는 4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나머지 22개의 문항에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이수정, 공정식, 2007).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사용하였고, 산출한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84, 일차적 정신병질 문항의 합치도는 .79, 이차적 정신병질 문항의 합치도는 .74이었다.

부모를 향한 거짓말 설문(Lying to Parents questionnaire)

연구 참가자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Engels 외 연구진(2006)이 개발한 부모를 향한 거짓말 설문(lying to parents questionnaire)을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자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연구자가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설문은 참가자들이 현재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를 평가한다.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활동과 행동에 대한 명백한 거짓말 8개 문항(예: “부모님께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십니까?”), 둘째, 친사회적 거짓말 2개 문항(예: “부모님께 선의의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과 사건에 대한 과장 2개 문항(예: “부모님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과장해서 말하니까?”)이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빈도를 5점 척도(1점: 절대 하지 않음, 5점: 매우 자주 함)로 답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개인의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영문 원척도(Engels et al., 2006)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

연구 참가자가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LeMoyné과 Buchanan (2011)이 개발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HPS)를 유계숙(2014)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의 활동에 매우 관여해왔다.”),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10개 문항 중 3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제시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개인의 점수를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성인진입기에 도달한 현재까지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자율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가 강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영문 원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1로 나타났고, 유계숙(2014)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하고 8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산출한 내적합치도는 .74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학년,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을 묻는 문항들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이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알아본 이유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하여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Hong & Cui, 2020).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주로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설문 광고와 함께 설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한 후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은 레벤슨 자기 보고 정신병질 척도, 부모를 향한 거짓말 설문,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정보 문항 순서로 제시되었다. 모든 문항에 답변한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사후 설명과 함께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2,000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며, 각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해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들의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 있어 청년들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기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 상관 관계

먼저, 각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를 향한 거짓말($r = .179, p < .01$), 그리고 참가자들의 정신병질 성향($r = .107,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정신병질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374, p < .01$)을 보였다.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의 정신병질 성향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예비 분석 결과, 세 가지 주요 변인,

즉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한 평균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_s > .05$. 부모와의 동거 여부의 경우, 동거 여부에 따라 참가자들의 정신병질 성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5$,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동거: $M = 29.13, SD = 5.53$, 비동거: $M = 27.71, SD = 5.10$)에 있어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1, 435) = 7.010, p = .008$. 또한,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부모에 대한 거짓말(동거: $M = 30.37, SD = 7.95$, 비동거: $M = 32.78, SD = 7.50$)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1, 435) = 9.736, p = .002$.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된 후,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 관계에서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들의 유의성 검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계수($N = 437$)

변인	1	2	3
1. 헬리콥터 부모역할	-		
2. 부모를 향한 거짓말	.179**	-	
3. 정신병질 성향	.107*	.374**	-
<i>M(SD)</i>	28.61(5.41)	31.25(7.87)	57.02(9.37)

* $p < .05$. ** $p < .01$.

표 2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검증($N = 437$)

경로	B	se	t	p	LLCI	ULCI
헬리콥터 부모역할 → 부모를 향한 거짓말	0.292	0.068	4.291	.000	0.158	0.426
헬리콥터 부모역할 → 정신병질 성향	0.073	0.079	0.917	.360	-0.083	0.229
부모를 향한 거짓말 → 정신병질 성향	0.435	0.055	7.943	.000	0.327	0.543

증 결과,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를 향한 거짓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92, t = 4.291, p = .000$).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정신병질 성향에 유의한 영향($B = .435, t = 7.943, p = .000$)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개변인 없이 동거 여부를 통제한 별도의 분석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정신병질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200, t = 2.406, p = .017$). 그러나 매개변인이 투입된 본 분석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정신병질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B = .073, t = .917, p = .360$).

대학생들의 지각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정신병질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였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를 향한 거짓말을 경유하여 정신병

질 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를 5,000회 반복 추출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를 향한 거짓말을 경유하여 정신병질 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B = .127$)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 [0.056, 0.214].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를 향해 거짓말을 더 빈번히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표 3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437$)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정신병질 성향	0.127	0.040	0.056	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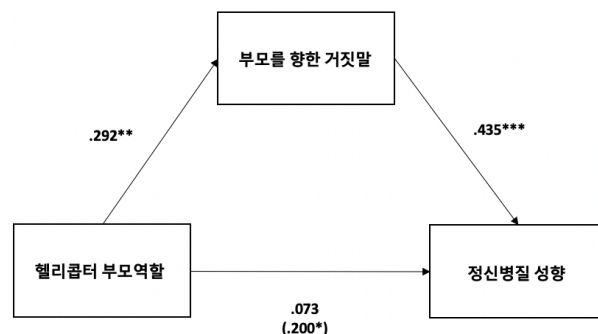


그림 2.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N=437$).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모형의 가독성을 위하여 통제변인(부모와 동거 여부)은 경로에서 따로 표시하지 않음.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진입기 청년들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 그리고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대학생들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빈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대학생들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그들의 정신병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셋째,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 빈도는 대학생들의 정신병질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일관적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은 성인진입기 자녀를 보호하고, 또한 자녀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선한 의도(benevolent intentions)를 반영함(Givertz & Segrin 2014)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를 강하게 보이는 성인진입기(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9; Seiffge-Krenke, 2009)의 특성상, 자녀들은 부모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기보다는 부모에게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모의 과보호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Jensen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 자녀의 진실성(authenticity;

Turner et al., 2020) 그리고 주장성(assertiveness; 김가연, 박주희, 2019)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 연구 결과로 보인다. 즉,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한 청년들은 자기 본연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양식은 대화 지향적(conversation-oriented)이기보다는 동조 지향적(conformity-oriented)임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Odenweller et al., 2014),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은 부모의 헬리콥터 역할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소통하기보다는 부모의 가치와 의견에 동조하는 양식, 즉 진실성이 낮은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 자녀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정도가 높을수록 그들의 정신병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과거 양육 시 자녀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며, 결과적으로 정신병질 수준이 높은 등 심리적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Santos et al., 2017; Setoh et al., 202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잦은 거짓말이 그들의 외현화 문제, 낮은 자기통제,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 해석된다(Engels et al., 2006; Gervais et al., 2000; Levenson et al., 1995; Stouthamer-Loeber, 1986).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설상 예측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향한 거짓말이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의 정신병질 성향 간 관계를 매개함을 보여

준다. 특히, 이 매개효과는 완전 매개효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정신병질 성향 간의 관계는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간접효과를 고려할 때만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병질의 발달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부모의 기질적 특성과 양육방식이 어떻게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이기적인 성향 등 기질적인 특성은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등 특정한 양육방식을 경유하여 아동의 정신병질 수준을 예측한다(Gao et al., 2021; Zhong et al., 2020).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행동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에 성인진입기 자녀의 정신병질의 발달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질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부모의 기질과 양육, 그리고 성인 자녀 스스로의 부모에 대한 행동이 복합적으로 어떠한 심리사회적 결과를 이끄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족상담 또는 대학생의 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컨대, 가족상담 장면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오히려 성인기 자녀들이 부모와 진실한 소통을 하는 것을 막고 성인기 자녀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간 보다 열린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가족 상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를 대상으로 개입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으나, 당사자인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성을 확보(김가연, 박주희, 2019)하여 부모와 보다 진실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들의 우울(Lee & Kang, 2018; Reed et al., 2016)이나 안녕감(LeMoyné & Buchanan 2011; Schiffrin et al., 2014)과 같은 변인에 주목해왔다. 이러한 개인 내 정신 건강 변인에서 나아가, 연구자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성인들의 자기애적 성향(Segrin et al., 2012, 2013), 사회불안(Moilanen & Manuel, 2019), 그리고 친사회성(McGinley, 2018) 등과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높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진입기 자녀들이 사회적 정보를 해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접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 자녀의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일방향적인 관계를 연구했다면, 본 연구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자녀의 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영향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그 양육 태도의 본질상, 성인진입기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더 자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반응으로써 보이는 부모에 대한 일상의 잦은 거짓말의 경험들이 그들이 부모 외 타인을 대할 때도 기만 혹은 조작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이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로써 측정 변인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 가설 중 하나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정도를 더 과도하게 평가하였을 수 있다. 또한, 부모를 향한 거짓말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역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의 역방향으로, 오히려 높은 정신병질의 기질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향후 실험 연구 혹은 종단적 접근을 통해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를 향한 거짓말, 그리고 정신병질 성향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포함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한계점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현재의 헬리콥터 양육의 결과인지, 혹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진 과잉보호적(Clarke et al., 2014; Cui et al., 2019) 혹은 과잉통제적(Barber, 1996; Silk et al., 2003)인 양육의 부정적 효과가 지속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관련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주로 아동기 양육 연구에서 언급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Padilla-Walker & Nelson, 2012), 그와 동시에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에 따른 과잉개입 (over-involvement)과 과보호를 보이는 태도라는

점에서 아동기 부모의 너그러운 양육(indulgent parenting)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Cui, et al., 2019). 따라서,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의 연구만으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성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제한점이 존재하며,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양육 방식 및 아동의 기질과 현재 성인진입기의 부모역할 및 발달적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응답 방식의 특성에 관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양육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부모를 향한 거짓말 혹은 정신병질을 평가하는 척도에 응답할 때에 타인에게 자신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과 같은 응답 편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가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 참가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직군과 문화의 성인진입기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성향이라는 종속변인에 주목하여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그들의 일상의 사회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그간 선행 연구(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LeMoyné & Buchanan, 2011; Odenweller

et al., 2014; Padila-Walker et al., 2012;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Urry et al., 2011)에서 다른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들의 우울, 불안, 안녕감 등 정신 건강 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하는 거짓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헬리콥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연, 박주희 (2019).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장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4), 165-177.
- 안혜연, 설경옥 (2020).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과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핵심자 기평가의 매개효과: 남녀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1(3), 33-58.
- 유계숙. (2014). 헬리콥터부모역할이 대학생자녀의 출산의향과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3), 5-12.
- 이수정, 공정식 (2007). 정신병질에 따른 국내살인범들의 살인행위 특성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3, 203-225.
- 이수정, 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 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Psychopathy).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39-77.
- 정경미, 조성현, 박찬솔. (2021).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공공재 게임 내 메시지 유형과 딜레마 상황 반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0(2), 187-211.
- Arnett, J. J. (1998). Learning to stand alone: The contemporary American transition to adulthoo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1(5-6), 295- 31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y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lair, R. J. R., Peschardt, K. S., Budhani, S., Mitchell, D. G. V., & Pine, D. S. (2006).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262-276.
- Book, A. S., Holden, R. R., Starzyk, K. B., Wasylkiw, L., & Edwards, M. J. (2006). Psychopathic traits and experimentally induced deception in self-report assess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4), 601-608.
- Bradley-Geist, J. C., & Olson-Buchanan, J. B. (2014). Helicopter parents: An examination of the correlates of over-parenting of college students. *Education and Training*, 56(4), 314-328.
- Brinkley, C. A., Schmitt, W. A., Smith, S. S., & Newman, J. P. (2001). Construct validation of a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does 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measure the same constructs as Hare's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7), 1021-1038.
- Clarke, J. I., Dawson, C., & Bredehoft, D.

- (2014). *How much is too much?* Boston: De Capo Press.
- Cleckley, (1976).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MO: Mosby.
- Cui, M., Darling, C. A., Coccia, C., Fincham, F. D., & May, R. W. (2019). Indulgent parenting, helicopter parenting, and well-being of par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3), 860-871.
- Deng, J., Wang, M. C., Shou, Y., Lai, H., Zeng, H., & Gao, Y. (2020).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psychopathy: A regression mixture analysis. *Current Psychology, 1*-12.
- Engels, R. C. M. E., Finkenauer, C., & Van Kooten, D. C. (2006). Lying behavior, family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5*(6), 949-958.
- Gao, Y., Huang, Y., & Li, X. (2021). Selfish parents, parenting practices, and psychopathic traits in children.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17.
- Gervais, J., Tremblay, R. E., Desmarais-Gervais, L., & Vitaro, F. (2000). Children's persistent lying, gender differences, and disruptive behaviors: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213-221.
- Givertz, M., & Segrin, C.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over-involved parenting and young adults' self-efficacy,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family communication. *Community Research, 41* (8), 1111-1136.
- Goldscheider, F., & Goldscheider, C. (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Leaving and returning hom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are, R. D., Hart, S. D., & Harpur, T. J. (1991). Psychopathy and the DSM-IV criteria f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391-398.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ong, P., & Cui, M. (2020). Helicopter parenting and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role of self-control and living arrange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2), 338-347.
- Jensen, L. A., Arnett, J. J., Feldman, S. S., & Cauffman, E. (2004). The right to do wrong: Lying to parents among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2), 101-112.
- Kahn, R. E., Deater-Deckard, K., King-Casas, B., & Kim-Spoon, J. (2016). Intergenerational similarity in callous-unemotional traits: Contributions of

- hostile parenting and household chaos during adolescence. *Psychiatry Research*, 246, 815-820.
- Kouros, C. D., Pruitt, M. M., Ekas, N. V., Kiriaki, R., & Sunderland, M. (2017). Helicopter parenting, autonomy support, and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sex and ethnic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3), 939-949.
- Krupić, D., Ručević, S., & Vučković, S. (2020). From parental personality over parental styles to children psychopathic tendencies. *Current Psychology*, 1-10.
- Kwon, K. A., Yoo, & G. Bingham, G. E. (2016). Helicopter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support or barrier for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 136-145.
- Lee, J., & Kang, S. (2018).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Korean emerging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child affection and pressure from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11), 3672-3686.
- LeMoynes, T., & Buchanan, T. (2011). Does "hovering" matter? Helicopter parenting and its effect on well-being. *Sociological Spectrum*, 31(4), 399-418.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51-158.
- Luyckx, K.,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 Berzonsky, M. D. (2007).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6-550.
- McGinley, M. (2018). Can hovering hinder helping? Examining the joint effects of helicopter parenting and attachment on prosocial behaviors and empathy in emerging adul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9(2), 102-115.
- Moilanen, K. L., & Manuel, M. L. (2019). Helicopter parenting and adjustmen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A consideration of the mediating roles of mastery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8), 2145-2158.
- Nelson, L. J., & Barry, C. M. (2005). Distinguishing features of emerging adulthood: The role of self-classification as an adul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2), 242-262.
- Nelson, L.J., Padilla-Walker, L.M., & Son, D. (2019). Helicopter parenting, parental control, and moral development during emerging adulthood. In D. J. Laible, G. Carlo, & L. M. Padilla-Walk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parenting and moral*

- development* (pp. 354-37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Odenweller, K. G., Booth-Butterfield, M., & Weber, K. (2014). Investigating helicopter parenting, family environments, and relational outcomes for millennials. *Communication Studies, 65*(4), 407-425.
- Padilla-Walker, L. M. (2014). Parental socialization of prosocial behavi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L. M. Padilla-Walker & G. Carlo (Eds.), *Prosocial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approach* (pp. 131-155).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adilla-Walker, L. M., & Nelson, L. J. (2012). Black hawk down? Establishing helicopter parenting as a distinct construct from other forms of parental control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5*(5), 1177-1190.
- Patrick, C. J., Cuthbert, B. N., & Lang, P. J. (1994).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Fear image process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23-534.
-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 Reed, K., Duncan, J., Lucier-Greer, M., Fixelle, C., & Ferraro, A. (2016). Helicopter parenting and emerging adult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0), 3136-3149.
- Santos, R. M., Zanette, S., Kwok, S. M., Heyman, G. D., & Lee, K. (2017). Exposure to parenting by lying in childhood: Associations with negative outcomes in adulthood. *Frontiers in Psychology, 8*, 1240.
- Schiffrin, H. H., Liss, M., Miles-McLean, H., Geary, K. A., Erchull, M. J., & Tashner, T. (2014). Helping or hovering? The effects of helicopter parenting on college students'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3), 548-557.
- Schiffrin, H. H., Erchull, M. J., Sendrick, E., Yost, J. C., Power, V., & Saldanha, E. R. (2019). The effects of maternal and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well-being of emergi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12), 3346-3359.
- Schiffrin, H. H., Batte-Futrell, M. L., Boigegrain, N. M., Cao, C. N., & Whitesell, E. R. (2021). Relationship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Prosocial Behaviors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4), 966-977.
- Segrin, C., Wozidlo, A., Givertz, M., Bauer, A., & Murphy, M. T.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over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entitlement

- and adaptive traits in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61(2), 237-252.
- Segrin, C., Wozidlo, A., Givertz, M., & Montgomery, N. (2013). Parent and child traits associated with overparent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6), 569-595.
- Seiffge-Krenke, I. (2009). Leaving-home patterns in emerging adults: The impact of earlier parental support and developmental task progression. *European Psychologist*, 14(3), 238-248.
- Setoh, P., Zhao, S., Santos, R., Heyman, G. D., & Lee, K. (2020). Parenting by lying in childhood is associated with negative developmental outcomes in adult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89, 10468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lk, J. S., Morris, A. S., Kana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113-128.
- Smetana, J. G., & Asquith, P. (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4), 1147-1162.
- Stevens, E. N., Bardeen, J. R., & Murdock, K. W. (2015). Parenting behaviors and anxiety in young adult.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6(3), 170-176.
- Stouthamer-Loeber, M. (1986). Lying as a problem behavior in children: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8(4), 267-289.
- Spokas, M., & Heimberg, R. G.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social anxiety,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6), 543-551.
- Turner, L. A., Faulk, R. D., & Garner, T. (2020). Helicopter parenting, authenticity, and depressive symptoms: A mediation mod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81(6), 500-505.
- Urry, S., Nelson, L. J., & Padilla-Walker, L. M. (2011). Mother knows best: Correlates of child disclosure and maternal knowledge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Studies*, 17(2), 157-173.
- Viding, E., Blair, R. J. R., Moffitt, T. E., & Plomin, R. (2005). Evidence for substantial genetic risk for psychopathy in 7-year-old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6), 592-597.
- Viding, E., & McCrory, E. J. (2018).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y: progress and challenges. *Psychological Medicine*, 48(4), 566-577.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5), 1592-1610.
- Waller, R., Gardner, F., & Hyde, L. W. (2013). What are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4), 593-608.
- Zhong, C., Wang, M. C., Shou, Y., Zhang, X., & Deng, J. (2020). Maternal parenti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pathic traits and child callous-unemotional traits: A longitudinal multiple mediation mode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1), 3142-3152.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pathic Tendencies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Lying to Parents

Ji-young Park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Parents' involvement is generally related to many positive child outcome. However, recent studies have found the negative effects of over-controlling parenting, or "helicopter parenting," in college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lying to one's par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pathic tendencies in emerging adulthood. Korean college students (N = 437) reported their parents' helicopter parenting, current deceptive behaviors toward parents, and psychopathic tendenc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dul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helicopter parenting showed higher levels of deception toward their parents and higher levels of psychopathic tendencies. The levels of deception toward parent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pathic tendencies.

Keywords : Emerging adulthood, Helicopter parenting, Lying, Psychopathy